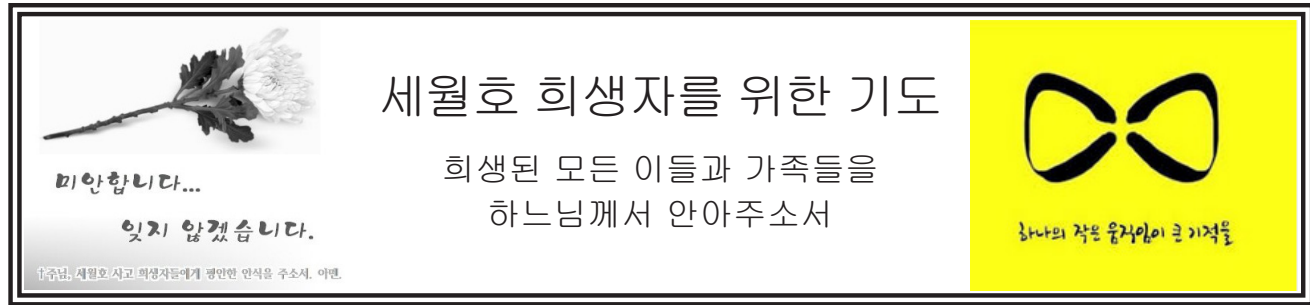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5월 기도지향

- 한봉경 베드로, 한순례 루시아 가정
- 한중문 요셉, 한정숙 마리아 가정

####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미사

서울 대교구는 오는 5/4 주일미사를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기도지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위하여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을 위하여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킨 우리 모두의 회개와 용서를 위하여 △슬픔과 고통에 빠진 우리 국민 모두의 위로와 희망을 위하여. 위로와 생명의 하느님께서 우리 정성을 봉헌합니다.

#### ‘성모의 밤’미사

- 일시 : 5/9(금) 오후 8시
- 장소 : 성당
- 지향 : 본당 공동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의 쾌유를 빌며

#### 본당 야외미사 및 야유회

- 일시 : 5/11(일) 오전 11시
- 장소 : 87th Shawnee Mission Park # 8

#### 구역모임

- 1구역 : 5/10(토) 오후 7:30 정석원 라파엘 가정
- 2구역 : 5/10(토) 오후 7:30 정준구 파비아노 가정
- 3구역 : 5/3(토) 오후 7:30 감영진 라파엘 가정

#### 시편 필사 가정

윤유나 글라라,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김태중 예레미아+ 김시연 엘리사벳, 김화년 요안나, 이영민 엘리사벳, 백문주 엘리사벳, 지은경 리브가, 김주연 세실리아(총 8가정)

#### 기타

- 맨하턴 공동체 야외미사(세례식)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평협 임원께 감사드립니다.
- ‘성모의 밤(5/9)’ 미사 때, 개별 가정 꽃바구니 봉헌 받습니다. 또한 개인 봉헌 장미는 전례부에서 판매합니다.
- 오늘 중심미사 후, 본당 야외미사를 위한 형제님들의 준비 모임이 회관에서 있습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35	221	165/174	132

####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이우영 (가브리엘) 문석찬 (요 셉)	이원준 (요 한) 문예나 (요 안 나)
차주	야외미사 정예찬 (미카엘),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유길수 (크리스토퍼) 유경애 (아 네 스)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류기범 (요 셉) 신혜경 (마 리 아)

####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 김화년, 박희옥, 안현숙, 전현교
차주	야외미사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4/27	90명	383불	1,880불
현교정, 양경직, 류기범, 박동희, 이우영, 김태중, 정지현, 김도영, 정준구(총 9세대)			

☞ Rice Bowl은 아직 회수 중입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한인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 살아 숨 쉬기를 청하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에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합시다.



### 성화해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카 24,15-16)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어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영광이며 죄와 죽음, 미움과 이기심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 2,14.22ㄴ-33 <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



◎ 주 님 당 신 은 저 에 게 생 명 의 길 을 가르 치 소 서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는 이 몸이오이다. 주님께 아뢰오니, "당신께서는 저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의 기업, 제 잔의 몫이시니, 저의 준비는 오로지 당신께 있나이다. ◎

○ 깨달음을 제게 주신 주님을 기리오니, 밤에도 제 마음이 저를 일깨우나이다. 주님을 언제나 제 앞에 모시오니, 제 오른쪽에 계시옵기 흔들리지 않으오리다. ◎

○ 그러기에 제 마음 즐겁고 영혼은 봄놀고, 욕심마저 편안히 쉬오리니, 제 영혼을 지옥에다 버리지 않으시리이다. 썩도록 당신 성도를 아니 버려 두시리다. ◎

○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흐뭇할 기꺼움. 당신 오른쪽에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보여 주시리이다. ◎

제 2 독 서 : 1베드 1,17-21 < 여러분은 티 없는 어린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 루카 24,13-35 <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 쉐 마

## “절망 속에 피어나는 희망”



제자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유다 그 녀석은 왜 그런 짓을 했니? 그리고는 목을 매! 사제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뭘 그리 잘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맨날 거드름만 피우면서, 잘난 척은 또. 빌라도 그놈도 그래. 뭐 어찌 예수님을 살려줄 듯하더니. 꼬리 내리고 군중들 무서워서 바라빠나 내주고. 도대체 한 놈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안 그랬어. 그 착하고 좋으신 분을.” “그런 말 하면 뭐 하나? 다 끝난 일이야.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어디로 다 숨었고. 우리도 뭐 잘한 것은 없잖아. 예수님 잡히시던 날 너나 나나 다 도망쳤잖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 내보야 아무 소용없어. 참자!” “야! 이게 참아서 될 일이나? 선하신 분, 예언자이시고 우릴 구원해 주실 분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안 계셔. 우리의 희망을 그놈들이 송두리째 뺏어버렸어. 어디 가서 이 답답함을 하소연해야 하나?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토닥여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 사건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군중과 사제들과 빌라도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끔 한 모든 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까움, 화, 절망에 싸여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으로 마음이 타올라 잡혀갈지도 모르는 사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화와 기쁨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걷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신나게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우정과 사랑을 나눈 형제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주십니다. 수난당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몇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수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들었지. 맞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부활하여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남아계시지 않을 거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고 계실 거야.’ 희망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화로 인해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완고한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절망과 완고한 그곳에 살며시 다가와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타올라 달려갑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절망적이라면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화가 난 이 두 제자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슬픔, 미안함, 안타

# 주춧돌

## 제 1 편 하느님 공경

### 제1-4장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옛날이 지났다(창세 1,1-2.31).

#### < 주석 >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의 활동을 묘사할 때만 사용된다. 성경과 고대 근동에서는 창조행위를 서술할 때 ‘생산하다’, ‘만들다’, ‘빚다’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주석 성경, 69).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영은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명을 가능하게 한다(상동).

**하느님:** 우리는 하느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첫 언명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신경 전체는 하느님께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것을 하느님과 관련시켜 말한다. 십계명 전체가 첫째 계명을 밝혀주듯이 신경의 모든 구절은 이 첫 구절에 종속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99항).

#### < 설명 >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와 햇빛, 물과 흙,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을 알아 뵈게 된다.

-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숨씨를 알리네(시편 19,1).
-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로마 1,20).

#### < 교회 가르침 >

- 하느님 홀로 자유로이,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도 없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가톨릭교회교리서, 317항).
-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시려고 세계를 창조하셨다. 당신의 진선미에 참여하는 바로 이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319항).

#### < 어록 >

당신이 하느님을 찾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매일 기도하려고 애를 쓰십시오(복녀 마더 테레사).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